

지역주민의 사회적 자본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에 미치는 영향 : 거주지역의 조절효과 분석*

The Effect of Local Residents' Social Capital on Participation
in Participatory Budgeting
: The Moderating Effect of Residential Area

박민정**
Minjeong Park

■ 목 차 ■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설계
- IV. 분석 결과
-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지역주민의 사회적 자본을 신뢰, 네트워크, 규범으로 구분하여 사회적 자본의 각 구성요소와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자본의 각 요소가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선, 대인신뢰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특정화된 신뢰는 주민참여 가능성을 낮추는 반면, 일반화된 신뢰는 주민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네트워크의 경우,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로 조직된 이차집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주민일수록 제도 참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호혜성 규범이 주민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 본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생산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자료관리규칙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았음.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RISE사업단 교육전문연구원

논문 접수일: 2025. 8. 11. 심사기간: 2025. 8. 11. ~ 2025. 9. 18. 게재확정일: 2025. 9. 18.

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사회적 자본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의 관계에서 거주지역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신뢰와 참여 그리고 이차집단과 참여에 대하여 거주지역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적 자본이 다차원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구성요소에 따라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거주지역을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으로 구분하여 사회적 자본과 주민참여에 대한 거주지역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 주제어: 주민참여예산제도, 사회적 자본, 신뢰, 네트워크, 규범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in participatory budgeting by conceptualizing social capital in terms of three dimensions: trust, networks, and norm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ndicates that each dimension significantly influences participation. First, trust in people plays an important role: generalized trust positively affects participation, whereas particularized trust has a negative effect. Second, residents who are more actively engaged in secondary groups composed of diverse members a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participatory budgeting. Third, the norms of reciprocity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participation. The study also investigates the moderating effect of residential context—specifically, whether residents live in urban or rural areas—and finds that residential area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nfidence in institutions and participation, as well as between secondary group involvement and participation. Taken together,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multidimensional nature of social capital and demonstrate that each dimension exerts distinct effects on participation. Moreover, the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on civic engagement by demonstrating how residential context shape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participation.

□ Keywords: Participatory Budgeting, Social Capital, Trust, Networks, Norms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주민의 사회적 자본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제도가 의무화되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확산되어 시행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편성을 비롯한 심의, 집행, 결산 등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방 재정 운용의 투명성, 건전성, 책임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김윤승·전성만, 2023).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최성환 외, 2017). 그러나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주민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었음에도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과 저조한 참여 수준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김지영·정문기, 2023; 임동완·윤성일, 2022; 현지우·임동완, 202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민참여 문제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민참여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제도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특히 지역별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유형화하여 제도의 운영실태를 파악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서인석 외, 2021; 윤성일·임동완, 2016; 이광원, 2018; 임동완·윤성일, 2022; 현지우·임동완, 2022). 이러한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주민의 참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기구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운영해야 함을 강조한다.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식 참여기구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뿐만 아니라 지역회의, 민관협의회, 주민참여예산연구회 등 다양한 참여기구를 운영하여 제도적 차원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일 필요가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나 지역의 유지들이 주도하여 운영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정재진, 2020; 최성환 외, 2017), 일반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동안 집행부가 독점해 왔던 예산 권한을 지역주민들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이 지역주민에 의해 이루어지는 주민자치를 구현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일반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곽채기, 2005). 이에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적 차원에서 주민참여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김정인, 2023; 김지영·정문기, 2023; 2024; 서인석 외, 2024). 본 연구에서는 상호 이익을 위한 조정과 협력을 촉진하여 지방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동력을 사회적 자본으로 보고(곽현근, 2017; Putnam,

1995a), 사회적 자본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지역주민의 사회적 자본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차원적 개념(Coleman, 1990)인 사회적 자본을 세분화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사회적 자본은 일반적으로 신뢰, 네트워크, 규범 등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되므로(Wu et al., 2018)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차원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개별 차원을 구성하는 세부 요인을 분류하여 사회적 자본의 각 요인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신뢰는 대인신뢰(특정화된 신뢰, 일반화된 신뢰)와 제도신뢰로, 네트워크는 일차집단과 이차집단으로, 규범은 호혜성 규범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사회적 자본이 여러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차원이 갖는 영향력이 다를 수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Bjørnskov, 2006).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몇 가지 차별성을 갖는다. 우선, 사회적 자본의 세 가지 차원을 세분화하여 각 구성요소가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신뢰를 대인신뢰(특정화된 신뢰, 일반화된 신뢰)와 제도신뢰로 구분하고, 네트워크를 결사체 구성원들의 동질성에 따라 일차집단과 이차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요소별 특성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지역주민의 사회적 자본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의 관계에 대한 거주지역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적 자본 역시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사회적 자본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에 미치는 거주지역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자본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문헌연구를 토대로 연구 모형과 가설을 도출하고, 분석을 위한 변수 측정 및 분석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셋째,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조절효과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이론적·정책적 함의와 함께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은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어떤 행위를 촉진하는 여러 속성을 갖는 실체(Coleman, 1990)로 일반적으로 신뢰, 네트워크, 규범 등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다차원적

개념으로 정의된다(Wu et al., 2018).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차원들은 시민참여 네트워크를 통해 호혜성 규범을 형성하고 사회적 신뢰를 촉진하여 공동체의 삶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Putnam, 1995a). 이에 초기 연구에서는 결사체 참여를 강조하며 자발적 결사체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였다(Paldam & Svendsen, 2000). 그러나 모든 종류의 결사체 참여가 일반화된 신뢰를 촉진하여 사회적 상호작용과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Stolle & Rochon, 1998). 또한 사회적 자본은 여러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차원은 각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차원이 미치는 영향력이 상이할 수 있다(Bjørnskov,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신뢰, 네트워크, 규범으로 구분하여 각 차원을 구성하는 개별 구성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신뢰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좋게 받아들이고 신뢰하려는 정도(Cook & Wall, 1980)이다. 신뢰는 선택이나 태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도나 행동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바탕으로 위험을 받아들이려는 의사가 포함된 근본적인 심리적 상태로 타인을 대하는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Rousseau et al., 1998). 신뢰는 크게 대인신뢰(trust in people)와 제도신뢰(confidence in institutions)로 구분된다(Newton, 2009). 대인신뢰는 사회구성원 간에 형성된 신뢰이며, 제도신뢰는 정부, 의회, 법원 등 제도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평가한 정도이다(Newton, 2009). 대인신뢰는 특정화된 신뢰(particularized trust)와 일반화된 신뢰(generalized trust)로 구분된다(Rothstein & Uslaner, 2005). 특정화된 신뢰는 혈연이나 학연과 같은 폐쇄적인 관계를 통해 서로 잘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리킨다. 이와 달리 일반화된 신뢰는 서로 잘 알지 못하고 사회적 배경도 다른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를 뜻한다(Newton, 2009). 이처럼 대인신뢰는 상대방과 오랜 상호관계 속에서 축적된 경험과 지식에 의해 형성된 지식에 근거한 신뢰(knowledged-based trust)와 인간 본성의 선함에 대한 믿음으로 특정한 대상에 국한되지 않는 일반적 신뢰(general trust)로 구분된다(Yamagishi & Yamagishi, 1994).

둘째,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중 비교적 객관적이고 외부에서 관찰 가능한 사회적 구조로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거나 특정한 단체에 가입함으로써 개인들이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뜻한다(이근수·송건섭, 2007; Grootaert, 2002). 이러한 네트워크는 참여하는 결사체의 유형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며(이근수·송건섭, 2007), 결사체 내부 구성원들의 동질성에 따라 일차집단과 이차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승현, 2008; 박희봉 외, 2005; 윤종빈·김소정, 2019; 이숙중·유희정, 2010; 이양수, 2006). 우선, 일차집단은 동질적인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구성원 간 유대감과 연대 의식을 결집시킨다(Putnam, 2000). 이에 따라 외부인에 대한 배타적인 경향을 보일 수 있다(Burt, 2000). 반면 이차집단은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하는 개방적인 네트워크로 생

산적인 목표를 지향하는 특징이 있다(Putnam, 2000). 또한 외부 결사체와의 활발한 연계와 상호작용을 통해 외부 정보를 얻는 데 용이할 수 있다.

셋째, 규범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공식적·비공식적 규칙(Horne, 2001)으로 특정한 사회적 맥락에서 개인의 행동 양식을 결정한다(Reimer et al., 2008). 이러한 규범은 호혜성 규범과 사회적 규범으로 구분할 수 있다(강내원, 2012). 호혜성 규범은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 당사자인 개인 간의 교환관계를 뛰어넘어 집단 전체에서 호혜성 규범에 의해 교환관계가 작동되는 것을 의미한다(박세경 외, 2008). 이러한 호혜성 규범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Coleman, 1988). 이와 달리 사회적 규범은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할 규칙으로 외부의 강제성이 포함되는 법적·제도적 규범을 가리킨다(강철희 외, 2015). 이러한 사회적 규범은 거래비용을 낮추고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를 높임으로써 개인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억제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회 참여를 높일 수 있다(강내원, 2012).

2. 사회적 자본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주민의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었음에도 일반 주민들의 참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맥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우선, 제도적·맥락적 요인에 대한 해외 연구에서는 사례 연구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참여 환경(Lehtonen, 2022)과 제도적 특징(Manes-Rossi et al., 2023)을 파악하였다.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분석한 연구(Hong, 2015)에서는 자치구별 포용성과 참여 위원들의 지식수준이 시민의 참여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편, 국내 연구에서는 지역별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서인석 외, 2021; 윤성일·임동완, 2016; 이광원, 2018; 임동완·윤성일, 2022; 현지우·임동완, 2022).

다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을 분석한 연구가 일부 존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를 분석한 연구(김지영·정문기, 2023)에서는 참여와 비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각각 제도 요인과 개인의 인식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집단이 경제활동 집단과 사회적 활동 소외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영·정문기, 2024). 다음으로 청년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를 분석한 연구(김정인, 2023)에서는 이웃에 대한 신뢰가 높고 자원봉사 또는 기부활동에 참여

하고 있는 청년들일수록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달리 가족에 대한 신뢰가 높은 청년들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청회 및 청문회 활동과 주민참여예산 활동을 주민참여라는 하나의 변수로 구성하여 신뢰가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서인석 외, 2024)가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일반신뢰가 주민참여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특수신뢰는 주민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III. 연구 설계

1. 가설 설정 및 연구 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주민의 사회적 자본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더불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수로서 거주지역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신뢰, 네트워크, 규범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구성요소와 시민참여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신뢰와 시민참여

신뢰는 대인신뢰와 제도신뢰로 구분되며 대인신뢰는 특정화된 신뢰와 일반화된 신뢰로 분류할 수 있다(Patulny, 2004). 우선, 특정화된 신뢰의 경우 사회적 협력 행위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정화된 신뢰가 높은 사람은 낯선 사람을 경계할 가능성이 높고 모르는 사람을 신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참여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Uslaner & Conley, 2003). 반면, 일반화된 신뢰는 시민참여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화된 신뢰는 낯선 사람(strangers)에 대한 신뢰로 기존에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한 신뢰보다 사회적 협력 행위를 더욱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김경환·박진우, 2023).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예상과는 달리 시민참여에 대한 특정화된 신뢰의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한 연구들이 있다(박희봉 외, 2005; 서인석 외, 2024; 송경재, 2020). 이는 참여에 대한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회문화적 특성에 기인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추가 연구를 통해 특정화된 신뢰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일반화된 신뢰의 경우,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화된 신뢰가 시민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기동·이정희, 2017; 송경재, 2020; 이숙중·유희정, 2010)가 존재하는 반면, 시민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서인석 외, 2024)을 미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이양수, 2006)도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시민참여 유형에 따라 대인신뢰가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며, 본 연구에서는 특정화된 신뢰와 일반화된 신뢰가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1-1. 특정화된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

가설 1-2. 일반화된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다음으로 제도신뢰와 시민참여의 관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Levi & Stoker, 2000). 스텔스 민주주의(stealth democracy)와 숙의적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의 상반된 시각이 있다(Lee & Schachter, 2019). 첫째, 스텔스 민주주의에서는 제도신뢰가 낮은 사람들의 참여가 높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도신뢰가 낮은 사람들이 시민참여를 통해 불만족스러운 조건을 개선한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숙의적 민주주의에서는 제도신뢰가 높은 사람들의 참여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뢰할 만한 정치 시스템이 시민들로 하여금 정부 과정에 참여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주장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는 연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제도신뢰가 시민참여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고명철·이아람, 2019; 2020; 김혜정, 2012; 유민이, 2017; 장혜윤, 2024)가 주를 이룬다. 물론, 제도신뢰가 시민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배귀희·임승후, 2009; 송경재, 2020)도 일부 존재한다. 하지만 제도신뢰가 낮은 사람의 경우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교정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으며, 제도신뢰가 높은 사람의 경우 높은 신뢰로 인하여 참여할 유인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낮은 제도신뢰가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를 높일 것이라고 예측한다.

가설 2. 제도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

2) 네트워크와 시민참여

본 연구는 네트워크 유형에 따라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가정한다. 네트워크는 결사체 구성원들의 동질성을 기준으로 일차집단과 이차집단으로 구분되므로(김승현, 2008; 박희봉 외, 2005; 윤종빈·김소정, 2019; 이숙중·유희정, 2010; 이양수, 2006) 어떠한

집단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할 가능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시민참여의 종류에 따라 일차집단과 이차집단이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박희봉 외, 2005; 이숙중·유희정, 2010; 이양수, 2006). 본 연구에서는 동질성이 높은 일차집단에 참여할 경우 외부와의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의 확장보다는 내부 결속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예측한다. 이와 달리 다양한 참여자로 구성된 이차집단은 개방적이며 생산적인 목표를 지향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 3-1. 일차집단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

가설 3-2. 이차집단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3) 규범과 시민참여

본 연구에서는 호혜성 규범과 사회적 규범 중 호혜성 규범에 초점을 두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도적 강제성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규범보다는 도덕적 의무감에 따른 호혜성 규범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설명하는 주요 사회적 자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Putnam, 1995a). 호혜성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한다(Coleman, 1988). 호혜성은 개인들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억제하여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공익 창출을 위한 협력적인 행동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최수빈·최성언, 2024).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실제 호혜성 규범이 시민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경재, 2020; 이양수, 2006; 장혜운, 2024).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호혜성 규범과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의 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측한다.

가설 4. 호혜성 규범 수준이 높을수록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4) 사회적 자본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에 대한 거주지역의 조절효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재정법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방식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지역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윤성일·임동완, 2019; 윤성일 외, 2022). 이러한 제도 운영 방식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도시 지역과 농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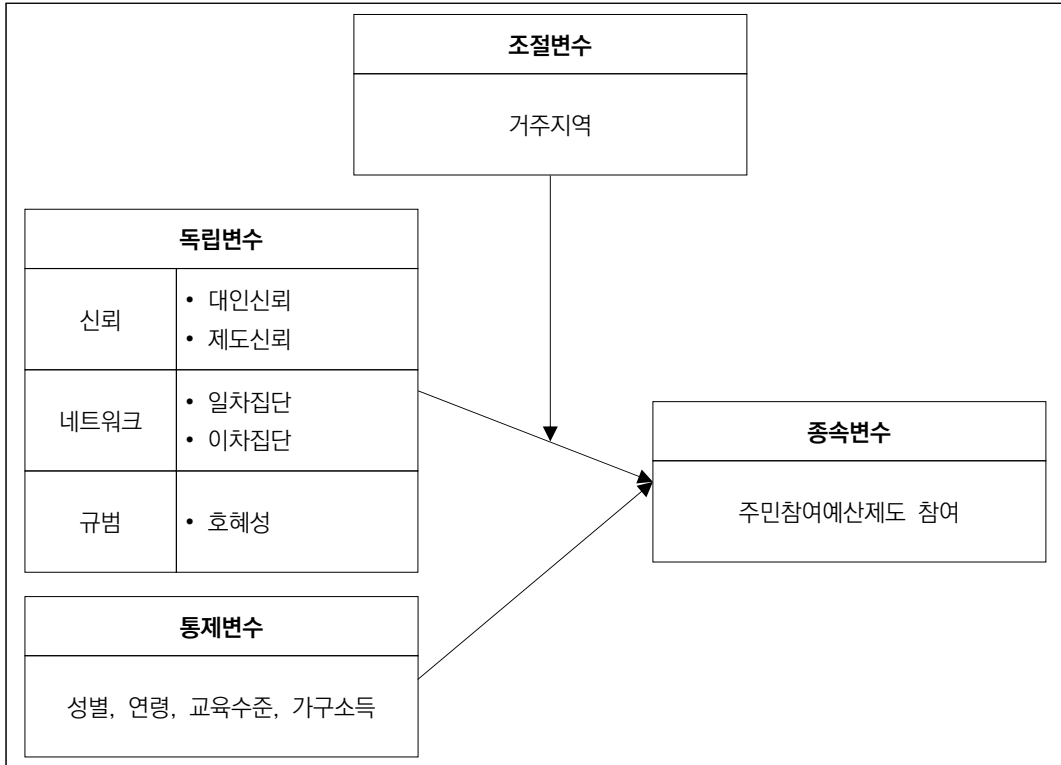
지역은 지리적 여건과 인구구조의 차이로 인해 주민들의 참여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서정섭 외, 2017). 농촌 지역의 경우 농가인구 비율과 고령인구 비율이 높으므로 도시 지역의 일반적인 참여 형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서인석 외, 2021). 또한 농촌 지역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의 다른 위원회에 중복하여 참여하는 위원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서정섭 외, 2017).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거주지역의 특성이 주민자치회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정규, 2025). 다만, 청년들의 거주지역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김정인, 2023)가 존재하므로 거주지역의 특성이 특정 세대를 넘어 일반 주민들의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사회적 자본 역시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보다 농촌 지역의 사회적 자본이 높다고 평가된다(Beaudoin & Thorson, 2004). Putnam (2000)의 연구에 따르면, 대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비해 지역단체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지역사회 공청회에 참여할 가능성이 30~4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사회적 신뢰도가 높고 시민참여도 역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utnam, 1995b). 이와 달리 교통과 통신 기술의 발달로 농촌이 도시화되면서 도시와 농촌 간 사회적 자본의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존재한다(Lannoo et al., 2012). 하지만 사회적 연결(connectedness)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Putnam, 2000), 사회적 자본의 유형에 따라 도시와 농촌 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Sørensen, 2016). 즉 공동체의 특성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할 신뢰, 네트워크, 호혜성 규범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Lim et al., 202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의 관계가 거주지역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가설 5. 거주지역은 사회적 자본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계하였다.

〈그림 1〉 연구 모형



2. 분석 자료 및 변수 측정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2022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주관적 웰빙과 역능성, 정치 참여, 사회 참여, 사회적 소통, 거버넌스, 신뢰, 관용성, 공정성, 사회보장 등 9가지 부문에 걸쳐 2013년부터 매년 조사되고 있다. 이 중 거버넌스 부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 활동 여부와 활동 만족도를 묻는 문항이 2017년 처음으로 포함되어 2022년까지 매년 조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신 자료인 2022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변수를 측정하였다.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이다. 지난 1년간 주민참여예산제도 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으면 1, 경험한 적이 없으면 0으로 이항변수로 처리하였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사회적 자본으로 신뢰, 네트워크, 규범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우선, 신뢰는 대인신뢰와 제도신뢰로 분류하였다(Newton, 2009). 대인신뢰는 특정화된 신뢰와 일반화된 신뢰로 구분하였다(Rothstein & Uslander, 2005). 선행연구에 따라 특정화된 신뢰는 가족, 친척, 이웃,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신뢰 수준을 묻는 세 개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일반화된 신뢰는 처음 만난 사람과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신뢰 수준을 묻는 두 개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김승현, 2008; 박희봉 외, 2005; 유지윤·박희봉, 2019; 허거훈·정혜진, 2020). 일부 연구(김상목·김승현, 2018; 박희봉, 2018; 서인석 외, 2024)에서는 일반화된 신뢰를 측정할 때 “귀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을 포함하였지만, 이 문항은 신뢰의 대상을 구체화하지 않아 응답자에 따라 아는 사람들에 국한해서 답을 할 수 있으므로(박종민·김왕식, 2006)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제도신뢰는 중앙정부 부처, 국회, 법원,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각각의 조직에 대한 신뢰 수준을 묻는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이양수, 2006; 박희봉, 2018).

다음으로 네트워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일차집단과 이차집단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김승현, 2008; 박희봉 외, 2005; 윤종빈·김소정, 2019; 이숙종·유희정, 2010; 이양수, 2006). 일차집단은 동창회 및 향우회에 대한 참여 수준을 묻는 단일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이차집단은 노동조합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직업조합, 시민단체, 지역사회 공공모임, 자원봉사 또는 기부단체, 사회적경제조직 등 사회단체에 대한 참여 수준을 묻는 다섯 개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일차집단 및 이차집단 참여를 측정한 기존 연구에서는 참여하는 사회단체 수의 총합(이숙종·유희정, 2010; 이양수, 2006), 참여 빈도(박희봉 외, 2005; 윤종빈·김소정, 2019), 참여 수준(김승현, 2008)을 고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집단에 참여하는 참여 수준을 통해 일차집단 및 이차집단이 주민의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규범은 호혜성에 대한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호혜성은 “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들은 힘든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 주는 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등 두 개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서인석 외, 2024).

3) 조절변수

조절변수는 거주지역으로 도시 지역에 거주할 경우 1, 농촌 지역에 거주할 경우 0으로 더

미변수화하여 측정하였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주관에 따라 거주지역을 범주형 변수로 측정한 연구(김기동·이정희, 2017; 이양수, 2006)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거주지역을 행정구역에 따라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으로 구분(김정규, 2025; 김정인, 2023)하여 측정하였다.

4)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선행연구(고명철·이아람, 2019; 2020; 김기동·이정희, 2017; 김정인, 2023; 김혜정, 2012; 박희봉 외, 2005; 배귀희·임승후, 2009; 송경재, 2020; 윤종빈·김소정, 2019; 이숙중·유희정, 2010; 이양수, 2006; 장혜운, 2024)를 토대로 시민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을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을 포함하였다. 분석에서 활용한 모든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방법은 <표 1>과 같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구분	변수		조작적 정의	측정
종속 변수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		지난 1년간 주민참여예산제도 활동	① 경험했음 ② 경험하지 않았음
독립 변수	신뢰	대인 신뢰	특정화된 신뢰	① 전혀 신뢰하지 않음 ② 별로 신뢰하지 않음 ③ 약간 신뢰 ④ 매우 신뢰
			이웃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	
		일반화된 신뢰	처음 만난 낯선 사람	
			국내 거주 외국인	
			중양정부 부처	
	제도신뢰	국회		
		법원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네트워크	일차집단	동창회, 향우회	① 소속된 적 없음 ② 과거에 소속, 현재는 아님 ③ 소속, 활동 안 함 ④ 소속, 적극적으로 활동 안 함 ⑤ 소속, 적극적으로 활동함	
	이차집단	노동조합단체, 사업자단체, 직업조합		
		시민단체		
		지역사회 공공모임		
		자원봉사 또는 기부단체		
		사회적경제조직		

구분	변수		조작적 정의	측정
	구 범	호혜성	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들은 힘든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함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일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②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③ 약간 동의 ④ 매우 동의
조절 변수	거주지역		① 도시 ② 농촌	
통제 변수	성별		① 남 ② 여	
	연령		① 19~29세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교육수준		① 초졸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 이상	
	가구소득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⑥ 500~600만원 미만 ⑦ 600만원 이상	

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은 분석 자료의 특성에 따라 채택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 변수는 참여와 비참여로 구성된 이항변수로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활용하였다. 우선, 분석을 시행하기에 앞서 변수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후, 연구 모형을 평가하기 위해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analysis) 여부와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여부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연구에 활용된 변수들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사회적 자본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 간의 관계를 검증한 후, 두 변수에 대한 거주지역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IV. 분석 결과

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서 활용한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총 표본 수는 8,294명으로 활용 문항 중 결측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시자료 전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표본의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4,113	49.59
	여성	4,181	50.41
연령	19~29세	1,270	15.31
	30대	1,207	14.55
	40대	1,537	18.53
	50대	1,660	20.01
	60대	2,620	31.59
교육수준	초졸 이하	713	8.6
	중졸	617	7.44
	고졸	3,254	39.23
	대졸 이상	3,710	44.73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508	6.12
	100~200만원 미만	664	8.01
	200~300만원 미만	1,144	13.79
	300~400만원 미만	1,447	17.45
	400~500만원 미만	1,290	15.55
	500~600만원 미만	1,487	17.93
	600만원 이상	1,754	21.15
거주지역	도시	6,708	80.88
	농촌	1,586	19.12
합계		8,294	100

2. 탐색적 요인분석

〈표 3〉은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우선,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총 19개 문항을 통해 ‘특정화된 신뢰’, ‘일반화된 신뢰’, ‘제도신뢰’, ‘이차집단’, ‘호혜성’ 등 총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각각의 요인적재값은 0.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고유값도 모두 1 이상으로 나타나 각 요인에 대한 측정 변수들의 설명력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¹⁾

1) 요인적재값은 일반적으로 0.5 이상이어야 하고, 고유값은 1 이상이어야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본다(Hair et al., 2014).

다음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개별 요인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요인의 신뢰도 계수가 0.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²⁾

〈표 3〉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항목		요인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신뢰도 계수(α)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특정화된 신뢰	가족	-0.014	-0.042	-0.186	0.032	0.813	0.699	1.619	0.544
	지인	0.107	-0.022	0.196	-0.048	0.732	0.589		
	이웃	0.138	0.035	0.409	0.214	0.509	0.493		
일반화된 신뢰	국내 거주 외국인	0.096	0.057	0.883	0.011	-0.014	0.792	1.854	0.798
	처음 만난 낯선 사람	0.093	0.044	0.880	0.027	0.097	0.795		
제도신뢰	법원	0.836	0.021	0.009	0.005	0.051	0.701	3.576	0.861
	검찰	0.827	0.032	0.028	-0.031	0.041	0.688		
	경찰	0.775	0.033	0.041	0.005	0.154	0.628		
	중앙정부 부처	0.768	0.035	0.067	0.008	-0.059	0.600		
	국회	0.691	0.067	0.198	0.034	-0.188	0.558		
	지방자치단체	0.684	0.021	0.008	0.059	0.245	0.531		
이차집단	사회적경제조직	0.014	0.853	0.032	0.014	-0.036	0.731	3.446	0.834
	시민단체	0.028	0.849	0.032	0.019	-0.082	0.729		
	노동조합단체, 사업자단체, 직업조합	0.014	0.756	-0.035	-0.053	-0.038	0.577		
	자원봉사, 기부단체	0.041	0.744	0.027	0.032	0.048	0.559		
	지역사회 공공모임	0.050	0.659	0.053	0.032	0.084	0.448		
	정당	0.038	0.645	0.033	0.050	-0.046	0.423		
호혜성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함	-0.009	0.009	-0.004	0.896	0.067	0.807	1.664	0.770
	보다 힘든 처지의 사람들을 도와줘야 함	0.049	0.067	0.076	0.894	-0.003	0.811		

KMO=0.814, Bartlett 구형성 검정=55548.705, p<0.001

2) 신뢰도 계수는 일반적으로 0.6 이상일 때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한다(Nunnally, 1978). 특정화된 신뢰의 신뢰도 계수는 0.544로 해당 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모형의 신뢰도를 크게 저해하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동일방법편의 여부를 검증하였다.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설문대상으로부터 자기보고 방식(self-reported method)의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측정하였기 때문이다(Podsakoff et al., 2003). Harman (1967)의 단일요인검증(single factor test)을 실시한 결과, 가장 큰 설명력을 갖는 요인이 전체 분산에서 25.2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동일방법편의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변수의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확인한 결과, VIF 값이 1.03에서 1.96으로 나타나 변수 간에 다중공선성이 문제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3. 기술통계 분석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우선, 대인신뢰에서 특정화된 신뢰의 평균은 3.087로 가족, 지인, 이웃에 대해서는 약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화된 신뢰의 평균은 1.911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처음 만난 낯선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도신뢰의 평균은 2.371로 중앙정부 부처, 국회, 법원,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신뢰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일차집단의 평균은 2.490, 이차집단의 평균은 1.294로 이차집단에 비해 일차집단에 대한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혜성 규범의 평균은 2.962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약간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기술통계 분석 결과

변수		개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		8,294	0.026	0.159	0	1	
신뢰	대인신뢰	특정화된 신뢰	8,294	3.087	0.424	1	4
		일반화된 신뢰	8,294	1.911	0.573	1	4
	제도신뢰	8,294	2.371	0.576	1	4	
네트워크	일차집단	8,294	2.490	1.476	1	5	
	이차집단	8,294	1.294	0.625	1	5	
규범	호혜성	8,294	2.962	0.618	1	4	

4. 상관관계 분석

사회적 자본의 각 차원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자본의 각 구성요소 간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 5>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변수	1	2	3	4	5	6
1. 특정화된 신뢰	1					
2. 일반화된 신뢰	0.217***	1				
3. 제도신뢰	0.172***	0.185***	1			
4. 일차집단	0.034**	0.017	0.052***	1		
5. 이차집단	-0.006	0.091***	0.091***	0.286***	1	
6. 호혜성	0.127***	0.081***	0.047***	0.051***	0.066***	1

*p<0.1, **p<0.05, ***p<0.001

5. 로지스틱 회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중 대인신뢰, 이차집단, 호혜성 규범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대인신뢰가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의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특정화된 신뢰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일반화된 신뢰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연 및 지연에 기반해 서로 잘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한 특정화된 신뢰는 제도 참여 가능성을 낮추는 반면, 서로 잘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에 대한 일반화된 신뢰는 제도 참여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특정화된 신뢰가 시민참여를 높인다는 기존 연구 결과(박희봉 외, 2005; 서인석 외, 2024; 송경재, 2020)와는 차이가 있다. 반면, 일반화된 신뢰가 사회적 협력 행위를 촉진하여 시민참여를 활성화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김기동·이정희, 2017; 송경재, 2020; 이숙중·유희정, 2010).

둘째, 이차집단 참여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참여자로 구성된 이차집단은 개방적이며 생산적인 목표를 지향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차집단이 시민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다(박희봉 외, 2005; 이양수,

2006; 이숙중·유희정, 2010).

셋째, 호혜성 규범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의 결정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호혜성이 높을수록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는 호혜성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Coleman, 1988). 이러한 결과는 시민참여에 대한 호혜성의 정(+)의 영향을 확인한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서인석 외, 2024; 송경재, 2020; 장혜윤, 2024). 다만, 청년들의 호혜성 규범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 결과(김정인, 2023)에 비추어 세대에 따라 호혜성 규범의 영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6〉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수		B	S.E.	O.R.	
신뢰	대인신뢰	특정화된 신뢰	-0.496**	0.164	0.609
		일반화된 신뢰	0.677***	0.123	1.967
	제도신뢰	0.144	0.127	1.155	
네트워크	일차집단	0.086	0.050	1.090	
	이차집단	0.360***	0.075	1.433	
규범	호혜성	0.309*	0.127	1.361	
거주지역		0.133	0.182	1.143	
성별		-0.056	0.143	0.946	
연령		0.172**	0.061	1.187	
교육수준		0.318**	0.115	1.374	
가구소득		0.049	0.047	1.050	
상수항		-7.501***	0.802	0.001	
χ^2		112.951***			
-2 Log Likelihood		1,889.314			

* $p < 0.1$, ** $p < 0.05$, *** $p < 0.001$

6. 조절효과 분석

지역주민의 사회적 자본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에 대한 거주지역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³⁾ 우선, 거주지역이 제도신뢰와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의 관계를 조절

3) 조절효과 분석 시 독립변수, 조절변수, 상호작용 변수 간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독립변수의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를 실시하였다(송지준, 2015).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도신뢰와 거주지역의 상호작용항이 주민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이차집단과 거주지역의 상호작용항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차집단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서 거주지역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표 7〉 조절효과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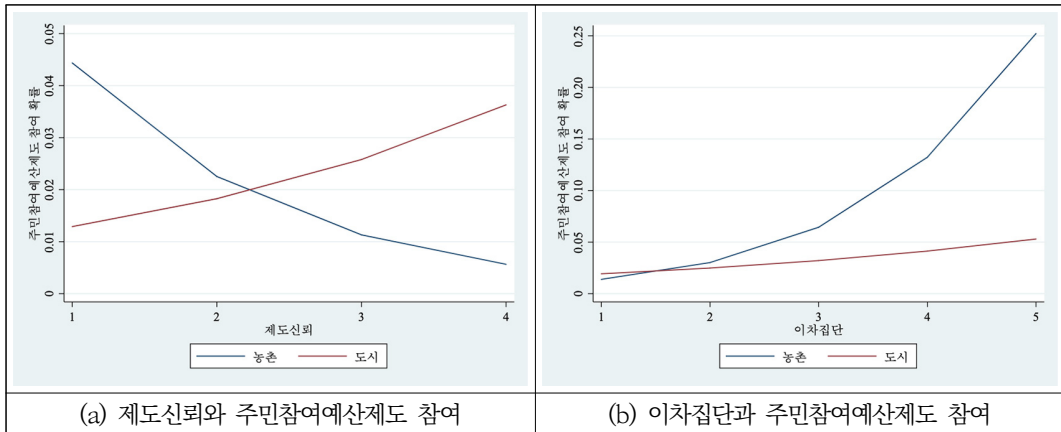
변수		B	S.E.	O.R.	
신뢰	대인신뢰	특정화된 신뢰	-0.855*	0.393	0.425
		일반화된 신뢰	0.857**	0.288	2.357
	제도신뢰	-0.700*	0.280	0.497	
네트워크	일차집단	0.132	0.120	1.141	
	이차집단	0.794***	0.171	2.213	
규범	호혜성	0.245	0.297	1.277	
거주지역		-2.379	1.679	0.093	
특정화된 신뢰×거주지역		0.364	0.432	1.439	
일반화된 신뢰×거주지역		-0.232	0.318	0.793	
제도신뢰×거주지역		1.053**	0.316	2.866	
일차집단×거주지역		-0.061	0.131	0.941	
이차집단×거주지역		-0.532**	0.192	0.587	
호혜성×거주지역		0.074	0.329	1.076	
성별		-0.067	0.143	0.935	
연령		0.169**	0.061	1.184	
교육수준		0.306**	0.116	1.358	
가구소득		0.045	0.047	1.046	
상수항		-5.179**	1.567	0.006	
χ^2		132.629***			
-2 Log Likelihood		1,869.637			

*p<0.1, **p<0.05, ***p<0.001

사회적 자본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의 관계에서 거주지역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 위해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그림 2>와 같다. 우선, 제도신뢰가 높아질수록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거주지역에 따라 제도신뢰가 주민의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 지역의 경우 제도신뢰가 높아질수록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농촌 지역의 경우 제도신뢰가 높아질수록 참여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음으로 이차집단에 대한 참여 수준이 높아질수록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거주지역에 따라 이차집단이 제도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시 지역에 비해 농촌 지역에서 이차집단 참여 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급격하게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사회적 자본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에 대한 거주지역의 조절효과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의 2022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사회적 자본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회적 자본을 신뢰, 네트워크, 규범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구성요소가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뢰를 대인신뢰와 제도신뢰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대인신뢰가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신뢰 중 특정화된 신뢰는 주민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일반화된 신뢰는 주민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네트워크의 구성요소 중 이차집단 참여가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호혜성 규범이 주민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혜성이 높을수록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추가적으로 사회적 자본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의 관계에서 거주지역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지역주민의 제도신뢰가 높아질수록 주민참여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거주지역에 따라 제도신뢰가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차집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주민참여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거주지역에 따라 이차집단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사회적 자본은 다차원적 개념으로 개별 구성요소들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초기 사회적 자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단일 개념으로 여겨졌지만(Bjørnskov, 2006), 단일의 실체라기보다는 다차원적으로 구성된 개념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신뢰, 네트워크, 규범으로 구분되어 각 차원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로 구성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회적 자본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각 요소별로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에 미치는 대인신뢰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특정화된 신뢰는 주민참여 가능성을 낮추는 반면, 일반화된 신뢰는 주민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화된 신뢰가 높을수록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경계하고 그러한 사람을 신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에 주민참여 가능성을 낮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Uslander & Conley, 2003). 이와 달리 일반화된 신뢰는 낯선 사람에게도 신뢰를 보이며 상호 이익을 위한 사회적 협력을 가능하게 하여 주민참여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특정화된 신뢰와 일반화된 신뢰가 주민의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이차집단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차집단은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생산적인 목표를 지향하며 외부 조직과의 연계도 활발하여 이러한 이차집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일수록 주민참여 가능성이 높아졌을 것이다. 특히 이차집단에 참여함으로써 약한 연결(weak ties)을 갖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져 참여 가능성이 증가했을 것이다(이숙중·유희정, 2010).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도를 널리 알리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호혜성 규범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를 높이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호혜성 규범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작동하므로 지역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 가능성을 높였을 것이다(Coleman, 1988).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만, 본 연구와 동일한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청년들의

호혜성 규범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를 도출한 연구(김정인, 2023)와는 차이가 있다. 이는 세대에 따라 호혜성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거주지역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에 따라 제도신뢰가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차집단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에 따라 주민참여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영향이 다른 것을 보여주며,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사회적 자본과 주민참여의 관계가 거주지역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의해 조절된다는 선행연구 결과(홍미나, 2023)에 더하여 거주지역의 조절효과로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함의에도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중 일차집단 참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동창회 및 향우회에 대한 참여 수준을 묻는 단일 문항을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일차집단에 해당하는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친목단체 등 개별 문항을 활용하여 변수를 구성한 후 보다 엄밀한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김승현, 2008; 박희봉 외, 2005; 이숙중·유희정, 2010; 이양수, 2006). 둘째, 신뢰도 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특정화된 신뢰 변수를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김승현, 2008; 박희봉 외, 2005; 박희봉, 2018; 서인석 외, 2024; 유지윤·박희봉, 2019; 허거훈·정혜진, 2020)를 토대로 변수를 구성하여 측정하였음에도 특정화된 신뢰의 신뢰도 계수는 0.544로 일반적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여겨지는 0.6보다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Nunnally, 1978). 물론 일부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가 0.5 이상일 때 중간 정도의 신뢰도를 보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Hinton et al., 2014),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엄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내원. (2012). 시민의 뉴스정보 이용이 호혜성 및 사회규범 인식에 미치는 영향: 사회자본이론과 사회규범이론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8(2): 73-100.
- 강철희·황지민·오양래. (2015). 사회자본과 나눔 행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 신뢰, 호혜, 규범의 영향력 분석. 「사회복지정책」, 42(2): 1-32.
- 고명철·이아람. (2019). 지방정부 신뢰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공동체의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1(3): 149-174.
- 고명철·이아람. (2020). 정부신뢰 및 정치적 효능감이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공공서비스 이용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4(4): 99-122.
- 곽채기. (200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모형과 운영시스템 설계방안. 「한국지방재정논집」, 10(1): 247-276.
- 곽현근. (2017). 지방자치 원리로서의 '주민자치' 재해석을 통한 생활자치 개념화와 제도모형 구성. 「현대사회와 행정」, 27(2): 1-29.
- 김경환·박진우. (2023). 지역공동체 활동이 사회적 신뢰를 증진시키는가?-용인특례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5(1): 57-88.
- 김기동·이정희. (2017). 한국 시민들의 신뢰수준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효과 연구. 「아태연구」, 24(2): 5-39.
- 김상묵·김승현. (2018). 사회신뢰와 정부의 역할. 「한국공공관리학보」, 32(2): 1-24.
- 김승현. (2008).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와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42(2): 67-88.
- 김윤승·전성만. (2023).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광역시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7(2): 67-109.
- 김정규. (2025). 주민자치회 참여의 행정적·사회적 결정요인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7(1): 61-81.
- 김정인. (2023). 청년의 사회자본이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지방행정연구」, 37(4): 241-272.
- 김지영·정문기. (2023). AHP를 활용한 주민참여 및 비참여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비교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32(3): 71-99.
- 김지영·정문기. (2024). 잠재계층분석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상 비참여 집단에 대한 탐색: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8(3): 217-242.
- 김혜정. (2012). 지역사회 시민의 참여활동과 영향요인. 「한국행정학보」, 46(2): 213-240.
- 박세경·김형용·강혜규·박소현. (2008).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회자본 형성의 실태와 과제」.

-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종민·김왕식. (2006). 한국에서 사회신뢰의 생성: 시민사회와 국가제도의 역할. 「한국정치학회보」, 40(2): 149-169.
- 박희봉·이희창·김종래·유재원·한인희·차일근·김철수·박병래. (2005). 사회자본과 정치참여: 한·중·일 3국 수도권 주민의 의식조사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9(4): 547-575.
- 박희봉. (2018). 정부신뢰의 본질: 정권에 대한 신뢰인가, 정부 시스템에 대한 신뢰인가?. 「한국행정연구」, 27(4): 1-34.
- 배귀희·임승후. (2009). 정부신뢰가 공식적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21(4): 1421-1449.
- 서인석·김선엽·주희진. (2021).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특성과 유형화: 주민참여예산범위, 기구구성수준, 지역특성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5(1): 111-143.
- 서인석·송민선·신유호. (2024). 일반신뢰인가, 특수신뢰인가: 한국적 특수성의 측면에서 주민참여와 의 경쟁적 가설관계 검증. 「한국행정학보」, 58(4): 231-265.
- 서정섭·김성찬·윤태섭·홍근석·곽채기. (2017).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모델 개발」. 원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송경재. (2020). 사회적 자본은 시민참여를 강화하는가?. 「NGO 연구」, 15(2): 1-30.
- 송지준. (2015).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분석방법」. 파주: 21세기사.
- 유민이. (2017). 시민의 정책참여 영향요인 분석: 온라인 활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1(2): 129-159.
- 유지윤·박희봉. (2019). 사회자본이 개인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공관리학보」, 33(3): 155-176.
- 윤성일·박형근·조병우. (2022).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 권한 확장에 관한 연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3(1): 135-152.
- 윤성일·임동완. (2016). 참여기구와 참여수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과 시사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6): 40-53.
- 윤성일·임동완. (2019).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토착화.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9(4): 89-115.
- 윤종빈·김소정. (2019). 사회적 자본과 정치참여. 「사회과학연구」, 27(1): 8-36.
- 이근수·송건섭. (2007). 지방정부의 시민접촉에 대한 사회자본의 영향. 「한국행정학보」, 41(1): 133-152.
- 이광원. (2018). 전국의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통해 본 참여범위 및 참여기구의 유형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2(2): 77-102.
- 이숙중·유희정. (2010). 개인의 사회자본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치학회보」, 44(4): 287-313.
- 이양수. (2006). 한국적 사회자본이 주민의 정치참여행태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연구」, 10(3):

- 25-43.
- 임동완·윤성일. (2022). 적극행정 관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고찰. 「사회과학연구」, 33(1): 329-347.
- 장혜윤. (2024). 사회적 자본이 정책참여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정책연구」, 24(1): 111-135.
- 정재진. (2020). 道 단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4(2): 101-134.
- 최성환·최준규·김수란. (2017).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및 개선방안」. 수원: 경기연구원.
- 최수빈·최성언. (2024).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타적 행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6(1): 259-288.
- 허거훈·정혜진. (2020). 사회적 자본이 시민들의 이민자 수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학회보」, 29(4): 145-172.
- 현지우·임동완. (202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참여유형에 관한 고찰.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3(2): 187-214.
- 홍미나. (2023). 사회적 자본 유형이 사회적경제 참여에 미치는 영향: 수도권 거주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13(1): 167-194.
- Beaudoin, C. E. and Thorson, E. (2004). Social Capital in Rural and Urban Communities: Testing Differences in Media Effects and Model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1(2): 378-399.
- Bjørnskov, C. (2006). The Multiple Facets of Social Capital.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2(1): 22-40.
- Burt, R. S. (2000). The Network Structure of Social Capital.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22: 345-423.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 Coleman, J. S.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ook, J. and Wall, T. (1980). New Work Attitude Measures of Trust,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Personal Need Non-Fulfillment.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53(1): 39-52.
- Grootaert, C. (2002). Social Capital: From Definition to Measurement. In Grootaert, C. and Van Bastelar, T. (Eds.). *Understanding and Measuring Social Capital: A Multi-Disciplinary Tool for Practitioners* (pp. 1-16).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 Anderson, R. E. (2014). *Multivariate Data Analysis*.

- London: Pearson.
- Harman, D. (1967). A Single Factor Test of Common Method Variance. *Journal of Psychology*, 35: 359-378.
- Hinton, P. R., McMurray, I. and Brownlow, C. (2014). *SPSS Explained*. New York, NY: Routledge.
- Hong, S. (2015). Citizen Participation in Budgeting: A Trade-Off Between Knowledge and Inclusivenes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5(4): 572-582.
- Horne, C. (2001).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the Emergence of Social Norms. In Opp, K. D. and Hechter, M. (Eds.). *Social Norms* (pp. 3-34). New York, NY: Russell Sage Foundation.
- Lannoo, S., Verhaeghe, P. P., Vandeputte, B. and Devos, C. (2012). Differences in Social Capital Between Urban and Rural Environments. *Journal of Urban Affairs*, 34(4): 373-394.
- Lee, Y. and Schachter, H. L. (2019).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rust in Government and Citizen Particip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42(5): 405-416.
- Lehtonen, P. (2022). Policy on the Move: The Enabling Settings of Participation in Participatory Budgeting. *Policy Studies*, 43(5): 1036-1054.
- Levi, M. and Stoker, L. (2000). Political Trust and Trustworthines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3(1): 475-507.
- Lim, S., Min, B. H. and Berlan, D. G. (2024). The Nonprofit Role in Building Community Social Capital: A Moderated Mediation Model of Organizational Learning, Innovation, and Shared Mission for Social Capital Creation.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53(1): 210-235.
- Manes-Rossi, F., Brusca, I., Orelli, R. L., Lorson, P. C. and Hausteine, E. (2023). Features and Drivers of Citizen Participation: Insights from Participatory Budgeting in Three European Cities. *Public Management Review*, 25(2): 201-223.
- Newton, K. (2009). Social and Political Trust. In Dalton, R. J. and Klingemann, H. D. (Eds.).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Behavior* (pp. 342-36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Nunnally, J. C. (1978). An Overview of Psychological Measurement. In Wolman, B. (Ed.). *Clinical Diagnosis of Mental Disorders: A Handbook* (pp. 97-146). New York, NY: Springer.
- Paldam, M. and Svendsen, G. T. (2000). An Essay on Social Capital: Looking for the

- Fire Behind the Smok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6(2): 339-366.
- Patulny, R. (2004). *Social Capital Norms, Networks and Practices—A Critical Evaluation* (SPRC Discussion Paper No. 134). Social Policy Research Centre, UNSW.
- Podsakoff, P. M., MacKenzie, S. B., Lee, J. Y. and Podsakoff, N. P. (2003). Common Method Biases in Behavioral Research: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Recommended Remedi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8(5): 879-903.
- Putnam, R. D. (1995a).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65-78.
- Putnam, R. D. (1995b). Tuning In, Tuning Out: The Strange Disappearance of Social Capital in America. *PS: Political Science & Politics*, 28(4): 664-683.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NY: Simon & Schuster Paperbacks.
- Reimer, B., Lyons, T., Ferguson, N. and Polanco, G. (2008). Social Capital as Social Relations: The Contribution of Normative Structures. *The Sociological Review*, 56(2): 256-274.
- Rothstein, B. and Uslaner, E. M. (2005). All for All: Equality, Corruption, and Social Trust. *World Politics*, 58(1): 41-72.
- Rousseau, D. M., Sitkin, S. B., Burt, R. S. and Camerer, C. (1998). Not So Different after All: A Cross-Discipline View of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3): 393-404.
- Sørensen, J. F. (2016). Rural-Urban Differences in Bonding and Bridging Social Capital. *Regional Studies*, 50(3): 391-410.
- Stolle, D. and Rochon, T. R. (1998). Are All Associations Alike? Member Diversity, Associational Type, and the Creation of Social Capital.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2(1): 47-65.
- Uslaner, E. M. and Conley, R. S. (2003). Civic Engagement and Particularized Trust: The Ties that Bind People to Their Ethnic Communities. *American Politics Research*, 31(4): 331-360.
- Wu, Z., Zhao, R., Zhang, X. and Liu, F. (2018).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Volunteering and Giving: Evidence from Urban China.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47(6): 1201-1222.
- Yamagishi, T. and Yamagishi, M. (1994). Trust and Commit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Motivation and Emotion*, 18(2): 129-166.

박 민 정: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논문: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Modes of Collaboration for Social Innovation: Constructing a Social Innovation Index and Analyzing Network Governance)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RISE사업단 교육전문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지방행정, 주민자치, 사회혁신, 거버넌스 등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The Effects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Networks on Social Innovation in Local Communities: A Multilevel Analysis Using the Social Innovation Index"(VOLUNTAS: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2025), "지역사회 통합돌봄 초기 정책확산 영향 요인 분석"(한국정책학회보, 2024), "사회적경제는 지역주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가?: 서울지역에 대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사회적가치와 기업연구, 2024) 등이 있다(mjpark0207@yonsei.ac.kr).

